

# “나의 특별한 가족 ‘보청견’ 있어 설날 외롭지 않아요”

청각장애인 보조견과 설 맞이하는 이지현·전강순씨

“올해 설도 내 귀를 대신해 고생해주는 특별한 가족인 ‘여름’이와 특별한 시간을 보낼 계획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이지현(여·33)씨는 민족대명절인 설 연휴 기간 보조견인(보청견) ‘여름’이와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다.

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하는 ‘안내견’은 많이 알려졌지만, 보청견은 생소해 하는 경우가 많다. 보청견은 청각장애인을 도울 수 있도록 훈련받은 특수목적견으로 청각장애인에게 생활에 필요한 소리나 정보를 구분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전국에 40여마리의 보청견이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전남 지역에는 단 두마리만이 보청견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일보 취재진은 최근 광주시 남구 월산동 남구농아인센터에서 두 마리 보청견을 모두 만났다. 이지현(여·33)씨의 ‘여름’이와 전강순(여·46)씨의 ‘니키’다.

“장애인 도우미개”라고 적힌 노란색 조끼를 갖춰 입은 보청견 여름이와 니키. “따르릉” 전화 벨소리가 울리면 휴대전화를 물어 주인에게 전달해주고, “뽕뽕” 경적 소리가 울리면 잠시 멈춰 주인에게 소리가 나는 곳을 고갯짓으로 알려준다.

소통도 수어로 한다. 엄지와 검지를 붙여 두 손으로 엑스(X)자를 만들어 보이면 ‘앉아’, 오른손을 펴 손등으로 턱을 두드리면 ‘기다려’라는 의미다.

벌써 7년째 여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씨는 “여름이는 나의 ‘귀’이고 친구이자 가족이다. 함께 하면서 외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생활 면에서도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전남 고흥군에서 일자리를 얻어 자취를 시작한 이씨는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달음식이 도착했다는 초인종을 듣지 못해 한참이 지난 후에야 받아본다든가 진동으로 해둔 알람이나 벨소리를 눈치채지 못해 중요한 일정을 놓치는 일

벨소리 울리면 휴대전화 물어 전달 자동차 경적 소리 들리면 알려줘 “나의 귀이고 친구이자 가족이죠” 광주·전남엔 2마리 밖에 없어 보청견 잘 몰라 카페 등 출입거부도 많이 알려져 어디든 편히 다녔으면

이 잦았다. 게다가 길을 갈 때 뒤에서 누군가 “조심해”라고 외치는 소리도, 자동차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해 사고가 날 뻔하기도 일주였다. 이때 지인으로 부터 보청견을 소개받아 여름이를 만났다.

여름이는 아침 알람이 울리면 휴대전화를 가져와 이씨를 깨우고, 길을 가다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면 ‘안전한 곳으로 길을 피해야 한다’고 눈짓으로 알렸다. 여름이를 만난 이후 회사에 지각을 하거나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다는 이씨는 “여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손발이 척척 맞게 됐다. 마치 여름이와 내가 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4년 전 고향 광주로 돌아와 부모님과 여름이, 반려견 두 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이씨는 “이제 12살이 된 여름이는 ‘나는 은퇴했다’는 듯 예전처럼 보청견 임무를 거의 하지 않지만, 여름이를 보고 배운 반려견 2마리가 휴대전화를 가져다주고 초인종 소리를 알려주며 보청견 흉내를 낸다”며 웃었다.

남구농아인센터에서 이씨와 여름이를 만난 전씨 역시 보청견에 관심을 갖게 됐고, 2살인 니키를 만났다. 어린 니키는 사람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지만,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쫓긋하고 전씨와 끊임없이 눈을 맞추며 소통한다. 전씨가 우울감을 느낄 때면



청각장애인 이지현(왼쪽)씨와 전강순씨가 각각 보청견 여름이와 니키를 안고 웃어 보이고 있다.

옆에 엎드려 함께 슬퍼해주고, 기운 차리고 함께 놀자는 듯 발로 전씨의 손을 끌어당긴다.

전씨는 이날도 턱을 활아대는 니키를 쓰다듬어주며 “니키 덕분에 매일이 즐겁고 활력이 넘친다”며 “친구이자 가족인 니키 덕분에 이제 외롭지 않다”고 말했다.

여름이와 니키는 각각 믹스견, 푸들로 몸무게가 3~4kg 내외의 소형견이다.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길을 갈 수 있게 안내하는 안내견과 달리 소리를 예민하게 포착해 주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보청견은 소형견이 대부분이다. 견종도 다양하고, 유기견이 훈련받아 보청견으로 활동하기도

한다. 보청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에게 가족의 의미를 넘어선 신체 일부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인 내견 외에 다양한 보조견이 있다는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보청견 출입을 금지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도.

전씨는 “안내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진 만큼 보청견 등 다양한 종류의 장애인보조견이 있다는 것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청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의 ‘들을 권리’이기도 하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번 명절 여름이와 가족과 함께 진도 여행을 할 예정이다. 이씨는 “최대한 ‘보청견’으로서의 여름이와 다양한 곳을 가보려고 노력한다. 여행지에서 사람들이 여름이를 통해 보청견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며 “보청견이 잘 알려져서 식당, 카페는 물론 학교와 직장까지 어디든 보청견과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각장애인안내견들과 마찬가지로 보청견 역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주인과 함께 공공장소와 식당, 카페 등 모든 장소에 출입할 권리를 갖는다.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글·사진=장해원 기자 hey1@

## ‘화정아이파크 참사’ 불법 재하도급 혐의 하청업체 대표 2명 항소심도 유죄 선고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불법재하도급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유진)는 23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A(55)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

다. A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B씨가 하도급이 아닌 노무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실제 공사에서는 타설 콘크리트 양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았고 안전사고 배상 책임을 B업체가 진 전 등으로 미루실제 재하도급 공사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대출비리 수사기밀 유출 현직 검찰 수사관 기소

광주의 한 저축은행 대출비리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이 기소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감찰수사부는 이날 초 광주지검 소속 수사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A수사관이 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영장 관련 정보를 대출 브로커 측에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당시 저축은행장은 대출 브로커에게 정략을 받고 총 241억원 상당의 부정 대출을 실행해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다.

대출 관계자와 대출을 받은 업자, 이들로부터 검찰 수사 무마를 청탁받고 수억원을 갹진 혐의로 변호사도 재판에 넘겨졌다. A수사관은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정병호 기자 jusbh@

## 유학생 허위서류 발급 알선 베트남인 2명 적발

광주출입국사무소, 불구속 송치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위서류 발급을 알선한 베트남인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A(25)씨와 베트남인 국내 브로커 B(29)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을 통해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한 베트남 유학생 44명을 범칙금 처분했다.

이들은 2023~2024년 유학생들 계좌로 가족이 보낸 것처럼 고액을 송금해 허위 잔고증명서와 해외송금증을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SNS를 통해 허위 서류가 필요한 유학생 고객을 모집한 이들은 원금과 함께 1일 이자만 1~6%(연 365~

2281%)를 받아냈다.

한 베트남 유학생은 2400만원을 송금받아 허위서류를 발급받은 뒤, 다음날 원금과 함께 이자 15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유학생들이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재정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 잔고증명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을 이용했다.

재정능력 입증서류로 분국 부모 명의로 기재된 해외 송금증을 제출하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보다 쉽게 체류연장 등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씨는 베트남에 있어 공소종지 처분이 내려져 국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www.kps.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